

# 캄보디아 농인선교 기도편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7~18)

살롱~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전하며 기도의 동역자님께 문안드립니다.

우키인 캄보디아는 매일 비가 내립니다. 한동안 가뭄으로 말랐던 메콩강은 우기를 맞아 다시 채워지고 가끔은 뽕뽕하여 홍수가 일어납니다.

## 교회 앞 홍수

프놈펜농인교회 앞 도로로는 비만 오면 항상 물이 불어나서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고 교회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강대상까지 물이 차오르지만 다행히 장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 항상 마음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빗 물이 많이 차올라 장비들까지 고장이 날까봐 걱정이 되기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 바로 물이 빠져야하는데 물이 빠지는데 하루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서 예배당 청소를 하고 선풍기를 돌려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홍수때문에 교회 이전도 생각을 해봤지만 매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농인 성도들중에 적잖은 성도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수가 없는 가까운 지역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 현지농인제자가 사역자로 거듭나다

농인 영상 스튜디오에서 매주 3일동안 모여서 IT 작업을 합니다. 11시 30분에 직원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3일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농인들에게 수어 찬양을 자주 접하게 하고 성경 용어도 조금씩 가르치고 성경도 쉽게 찾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수어 찬양을 하고 성경을 찾는 모습이 바로 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은 저와 농인제자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농인제자에게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눌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바쁜 사역 일정으로 직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농인



제자가 예배 진행을 잘 하고 있어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 느덧 현지 농인 제자가 현지 농인 사역자로 거듭나고 있는 거 같이 감사합니다. 농인교회에 성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인교회 개척했을 때는 현지 농인 제자와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제자훈련과 기도를 통해 농인 성도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온 성도들은 어른이 아닌 모두 학생들입니다. 농학생들은 현지 농인 제자 청년 두 명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실감이 납니다. 제자를 통해 찾아온 학생들을 생각하면 사가 넘칩니다. 계속해서 매달 한번씩 오병이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 모언부터 집 심방하다

청년 제자 모언부터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저희부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모언부터 부모님께서 매주 주일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셨는데 뚝뚝이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를 당하셔서 부모님이 다치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모언부터는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모언부터 집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박카스 한박스를 사들고 집에 들렸습니다. 모언부터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구글번역앱을 통해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대화를 했는데 기쁜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언부터의 아버님께서 아들이 대학교 입학과 IT직업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IT직업이 있으나 농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IT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하고 대학졸업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인 딸도 있는데 주일에는 반드시 농인교회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GPTI 힐링캠프 캄보디아에서 개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GPTI 연합동역회에서 힐링캠프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서 개최했습니다. 선교 7년차를 맞은 저희 가족은 안식년을 보내야했지만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저희 부부만 GMS특별과정 훈련을 받고 인준식과 파송식 일정때문에 안식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힐링캠프가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덕분에 저희 가족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정 중 미션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의 큰 아들 종환이가 3박 4일동안 저의 부부를 위해서 수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수어통역사가 예정되었었지만 코로나가 걸려서 아쉽게 참석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쉼을 얻었고 교제와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아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국립특수교육연구소 방문 및 회의

프놈펜에서 농인학교는 두 곳이 있는데 그 중 한 곳 농인학교 옆 건물에 국립특수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 아는 부회장님의 도움으로 방문 허락을 받아 방문할 수 있었는데 부회장님뿐 아니라 몇 농인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거부감없이 맞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부회장 그리고 수어통역사와 함께 서로 소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연구소는 농인학교와 같이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프랑스 지원이 중단되어 대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농인 외에 맹인 그리고 지적 장애인(정신 지체)등을 위한 특수교육 연구 기관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어책은 진열되어 있었지만 수어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롭게 출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대신 직원만 다른 지역에 파견하여 수어를 연구만 하고 있는 모습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인영상스튜디오 채널 하나를 보여주었고 IT 교육(어도비)과 전문 IT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더니 부회장님께서 동의해주셨고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서 직업 창출을 위해 방법을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 기도제목

1. 현지장애인(농인)에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한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포함)도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 프놈펜농인교회 농인성도들에게 영적 충만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3. 저희교회는 내년 5월초에 계약만기여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농인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잘 구할 수 있도록
4. 현지사역자들 쉼어쓰다이, 모언부터, 룡치영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이 되도록
5. 성경수어개발연구 진행중입니다. 국립특수교육연구소에서 일하는 비기독교인 3명이 격주로 주일에 와서 기독교수어용어 감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수어용어를 캄보디아에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6. 프놈펜농인교회와 농인영상스튜디오 운영과 현지사역자에게 선교사역 지원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이 채워지도록
7. 저희 부부가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8. 저희 세 아들이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